



인터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04



Economy

코스피 2566.36 (-7.28)	코스닥 734.26 (+11.46)
금리 (미국 3년) 2.596 (+0.026)	환율 (원/달러) 1453.00 (-0.80) (14일)

m-커버스토리

철회? 유예? 오락가락 美관세정책 자동차·철강 등 韓 수출 '시계제로'

'갈지자' 트럼프 행보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 철회 또는 유예 재차 번복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
경제 전망치 수정 불가피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스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대미 수출 기준 8위 흑자국인 한국에 관세 압박은 예상돼 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효한 데 이어 내달 2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2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며 "만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거라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자동차는 우리 수출액 기준 1,2위 효자품목이고, 철강의 경우 17% 수준을 미국에 수출한다.

다만, 트럼프 무역통상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은 커진 양상이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변동 폭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 앞서 예고했던 25%보다 2배 높은 50% 관세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다고 했다가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 계획을 철회하자 5시간여 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앞서 취임 직후에도 2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

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발효 하루 전 한 달간 유예했고, 3월에도 관세 부과를 재차 유예하기도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이달 4일 발효 직후 전격 1개월 면제 결정을 내렸다. 내달 2일 예고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일부 국가나 품목에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무역통상 체제가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휩싸인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트럼프발 올해 경제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인 작년 11월 25일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트럼프 관세 영향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를 예측했던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정 전망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여·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尹 탄핵심판 '결전의 한주' 여야 장외투쟁 등 전운고조

이번주 중후반 선고 예측
대선 판도가 갈 분수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탄핵 찬반 투쟁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결정되는 만큼,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시선은 현재에 쏠릴 예정이다.

경찰 비공산 추산 기준, 지난 15일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자유통일당이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3만5000여 명이 운집해 각각 세를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행진에 나서며 여론전을 벌였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근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옛새끼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도 장외투쟁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장외투쟁 참여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현재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앞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병주 사재 출연... "홈플러스 결제대금 지원"

MBK파트너스 회장 입장문 희생절차 사회적책임 다할 것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의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희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홈플러스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 거래처에 즉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한 뒤 지원 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예상되는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의 지급 불능 사태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홈플러스가 법원의 보호 아래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희생절차가 홈플러스 정상화의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에는 약 1만9000명의 임직원과 근로자가 있으며, 임차 점포 및 납품업체를 포함해 약 6000여 개의 상거래처가 연결돼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이번 희생절차가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채권 변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희생절차를 통해 홈플러스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신속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최근 실적 부진과 재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의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소상공인 거래처 보호를 위해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관측에 與장릉들 행보 재개
-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뉴욕서 한국경제설명회

- ▲'4·2 재보궐 선거' 앞두고 투·개표소 화재안전 조사
- ▲北 "주일미군기지 F-35B 추가 배치...美 발악적 군사모험"

- ▲北 김정은,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시찰
- ▲北 최섉희, 리 외무차관 만나...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

바이오·반도체 업종 등 추가 등판 NXT, 오늘부터 거래종목 110개로

넥스트레이드, 총 100개종목 추가
오투기·농심·이마트·GS리테일 등
유가증권시장 식품·생필품주 선풍
씨젠·메디톡스 등 바이오도 눈길

출·퇴근길 '동학개미'들의 손이 더
바빠질 전망이다. 17일부터 대체거래
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 종목
이 기존 10개에서 110개로 늘어난다.

16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NXT
2단계 거래 확대에 따라 17일부터 코스
피 50개, 코스닥 50개 종목이 새롭게 거
래된다.

경기방어주인 식품·유통주와 성장
주인 바이오·반도체 업종이 대거 포함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투기, 농심,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등 식품주와 이
마트,GS리테일 등 생필품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을 찾아간다. 이들 종목은 미국
발 경기 둔화 우려로 최근 주목받고 있

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
필수소비재지수는 지난 14일 증가 기준
1187.62로 1년전보다 12.11% 상승했다.
특히 농심은 NXT 주도로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 "주요 제품
들의 가격 인상이 진행된 만큼 올해 2분
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9만원은 유지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도 거래를
시작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씨젠, 메디톡스,
메지온, 차바이오텍, HK이노엔 등 바
이오 업종이 눈길을 끈다. 기술 수출 및
신약 개발 모멘텀이 기대돼서다. 이들
기업에 포함된 KRX 헬스케어 지수는
지난 14일 3907.15로 거래를 마쳤다. 지
난해 대비 12.74%가량 오른 수치다.

코스닥 반도체 기업인 넥스틴, 원익
IPS, 유진테크, 이녹스첨단소재, 테스
등도 NXT시장에 등판한다. 이들은 인
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성장과 맞

물려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증권가는 NXT가 무난히 안착했다
는 평가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정규장 이후 공시로 인한 대체
거래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시차
가 있는 해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
목에 대한 가격 반영 과정에서도 대체
거래소에서 가격 반응이 나타날 확률
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입
장에서 대체거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유인이 발생한다면 대체거래소 점유율
이 증가할 여력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NXT는 3단계 종목 추가일인
24일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이
추가되며, 총 350개 종목이 거래될 예
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정인교(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미 무역대표부(USTR) 본부에서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관세면제·비차별대우 건의 美와 지속적 협의진행 합의

산업부, 워싱턴서 USTR 대표 만나
트럼프 '관세 4배', 사실관계 설명

우리나라가 지난 주말 미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주
문했다. 또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한국
의 위생·검역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
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
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계획에 대
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
혔다. 또 "향후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고 했다.

산업부는 특히, 오는 4월2일로 예정
된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와 관련해 "(정 본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우리
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
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고 전했다.

면담에서 우리 측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관세가 실

질적으로 철폐된 상태임을 내세운 것
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
리되고 있다. 또 양국 간 교역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4
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상·하
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양측 인식차가 있
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
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
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
했다.

이어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
측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
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
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했다.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
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
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관세전쟁 격화... 국제 금값 3000달러 돌파 (온스당)

美 금리인하 전망, 금값상승 부추겨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며 온스당 3000달러를 넘겼다. 트럼프 발
(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상승
률도 예상을 밑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
다는 분석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온스(31.1g, 약 8.1돈)당 3001.10달러
(약 435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9.80달러(0.33%) 오른 가격으로,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은
이날까지 일 평균 0.87%의 상승을 기
록하며 4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
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대표적
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이 확산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
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
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

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세계적
인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
A) 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서 수입되는 수입품 대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5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가산 관세
를 20%로 상향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고관세
를 대표로 한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질
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충격을
경계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 내 자산 가
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전 위험 징후
가 포착되는 점 또한 경기 우려를 자극하
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트럼프 한마디에 산업 전망 ‘널뛰기’ 확고한 대미 수출전략 필요한 때



/유투이미지

‘수출둔화’ 그림자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는 지금까지 50가지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 50여일간 매일 1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낸 셈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해 미국의 무역 및 통상 정책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주요 거래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전쟁으로 포문을 열었다.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을 해소하고, 차별적 조세 정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50여건 이상 행정명령 자국 중심 무역·정책 전면 개조 글로벌 주요국 상호관세 대응

상무부에 무역적자 원인 조사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해소 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했고, 재무부 등에는 대외수입청 신설 타당성 검토를, USTR에는 모든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평가해 구제책을 제안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관세 부과는 4월 2일로 못박았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US-TR과 상무부에 대중 관련 추가 관세 조치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수출통제,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파악해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주요국과의 잇따른 관세 전쟁에 미국 내 산업계 비용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무역 조치 시행 시 의회 견제가 필요없는 행정적 수단을 집중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월까지 수출 마이너스, 상승 기미 안보여

이런 가운데 우리 수출은 둔화세로 전환한 모양새다. 우리 수출은 ICT 품목의 높았던 증가세가 조정되는 가운데,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둔화되는 모습이다.

2월 수출은 +1% 소폭 증가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5.9% 마이너스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 ICT 품목(-5.1%)이 범용 반도체 부진에 주로 기인해 감소한 가운데, 글로벌 수요 둔화로 ICT 제외 수출액도 -6.2%로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평균 기준 범용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 중국 수출이 -8.2%, 대 미국 수출도 통상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일반기계(-24.6%)를 중심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이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 대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ICT, 일반기계에 대한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 전체 수출 중 대 미국 수출은 18.7%로, 이 중 이들 품목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달 10일까지 수출 2.9% 증가했으나, 수출 1위 품목 반도체는 정체 상태다. 지난 연말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였던 수출은 1월 설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소폭 증가한 상태다. 2월까지 누적 수출은 1017억 3000만달러로 전년동기(1068억 300만달러) 대비 4.75% 마이너스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 둔화세 고착화도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

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언급한 건 올해 1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3월엔 ‘수출 증가세 둔화’ 표현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인지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韓,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 지속 관세 등 글로벌 변화 대응 취약 “성장률 1.4%까지 내려갈 수 있어”

트럼프발 수출 둔화 영향은 이미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GM 부평공장은 국내 철수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중 미국 수출 비중은 83.8%에 달한다. 작년 기준 한국GM 협력사는 약 3000여곳으로 한국GM이 철수하면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부터 포항2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고, 경북 포항공장 기술직 12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포스코도 작년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11월 1선재공장 문을 닫았다. 이들 계열사와 협력사, 운송업체 등도 타격을 받고 있다.

◆ 트럼프 갈짓자 행보… 수출 영향 변동폭 커져

수출 둔화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영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부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에

대한 잇따른 유예조치 등 여러 차례 발언을 철회하거나 번복한 바 있다. 지난 12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한 날, 내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 “그 이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나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취임 직전 그가 예고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폭 등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발 대미 수출이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대비 최소 8.4%~최대 14.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던 산업연구원은 이런 전망을 수정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시나리오가 너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로 많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발표한 밴드에서 좀 더 영향이 큰 쪽으로 가고 있고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했다. 또 “일단 관세를 맞으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관세 영향은 성장률로 보면 0.2%~0.3% 포인트 정도까지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 영향보다 트럼프 관세 영향이 작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회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올해 금리가 작년보다 하락했지만, 트럼프가 오면서 그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트럼프의 보편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 내 수입산 제품 수요를 감소시켜 시장을 축소할 수 있고, 국산 수출품 수요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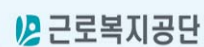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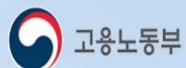
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작년 11월 경제전망 예상을 낮춰 잡았다. 보고서는 “당시 예상보다 미국이 관세정책을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해 국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1.5%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이다.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뉴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3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전자신고 경품행사

기간
보험료 신고
2025.2.1.(토) ~ 3.31.(월)

경품
커피 기프트콘(1,200명)



문의 사항

☎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

www.total.comwel.or.kr



“경쟁 지양, 격차해소 집중 역사·문화 감수성 키울 것”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경우 대학 신입생 중 장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는 사회인 비율이 40%에 달해요. 우리나라도 ‘내 삶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때 대학 갈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을 확대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교육 불평등 문제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출신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수입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고교 졸업 후 N수를 해서라도 보다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교육이 결국 부의 분배 문제와 직결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고한 대학 서열화를 포함한 대입 제도 문제는 초·중등교육 전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까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격차, 단발성 제도론 해결 안 돼… 공교육 틀에서 맞춤형 지원”

정 교육감의 우려대로 교육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물론, 교육 결과에 따른 부의 지나친 격차도 불평등 문제로 직결된다.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학습격차 해소’를 최대 화두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기회 불평등이나 학습격차는 단발성 조치나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세대를 거듭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교육 내에서 격차 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이 취임 후 1호로 결재한 서울학습진단성장은 그렇게 출범했다. 센터는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심층진단 및 개별 맞춤 학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서울동구초등학교 내에 꾸려진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강동송파, 남부, 중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 학교 노후 건물 재건축, 국가 정책으로 마련돼야”

정 교육감은 취임 후 5개월을 돌아보며 “생각보다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국회 국정감사 데뷔 전

을 치른 데 이어 취임 후 맞는 첫 학기엔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비 지원 종료 등 교육계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신학기를 앞두고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학교 건물 등급 문제로 인한 개학 연기 등 안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 교육감은 그때마다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교육감 후보 시절 ‘학교 현장 주 1회 방문’을 공언한 그가 취임 이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금까지 찾아 간 학교는 30여곳에 달한다.

이같은 정 교육감의 ‘찾아가는 행정’은 곧장 정책안으로 실현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최근 학교 안전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서울 시내 1340개 학교 660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등급(A~D등급)을 정리하고, 건축 연도별로 40년·50년·60년 등의 기준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건축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생각보다 학내 노후 건물이 많더라”며 학교 건축물도 국가적 수준에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서열화 극복 위해 대입제도 개편 추진 학습진단센터 통해 맞춤형 공교육 지원 강화 노후 학교 재건축 국가 차원 대책으로 마련 역사자료센터 설립 등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 AI 교과서 도입, 효과 검증 후 신중히 적용

그는 “현재는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면 개별로 보수나 재건축 등 땀집식 처방을 하고 있다”라며 “건축물이 재개발 연도에 다다른 학교는 정부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종합 계획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국가 교육 주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사 소양 갖춰야 편향된 좌우 이념 대립 갈등 풀 수 있어”

정 교육감은 역사사회학자 출신답게 ‘역사 교육’을 강조한다. 정 교육감은 “‘지식’으로의 역사’를 넘어 ‘의식’으로의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학생들이 역사적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 지식은 수업에서 찾지만, 역사 의식과 소양은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키워야 한다는 게 정 교육감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삼일절 유관순 열사 모교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해 만난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를 유관순 선배라고 부

르더라”라며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을 나의 삶과 연관지어 역사 의식을 쌓아간 일례”라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 공약으로 내놔던 시교육청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아카이브와 같이 온라인 상에 역사교육 자료센터를 구축해 검증된 역사 자료를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교원 및 역사교육 관련 연구자,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소양을 갖춰야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된 좌우 이념 대립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역할하도록 지원”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정 교육감은 특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이뤄져야 고교학점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당 1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희망 과목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른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공유캠퍼스를 54개교(69과목)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교육자료’로 역할을 시작한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두고는 “AI 기술과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완전히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AI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AI디지털교과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앞서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 검증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쳐왔다.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교사역량 제고, 시설·비용문제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점도 우려 사항이다.

당초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해

쓰일 예정이었지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서울 학교 중 이번 학기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곳은 지난달 21일 집계 기준, 383곳이다. 전체 서울 학교 중 29.4%를 차지한다. 시교육청은 이 중 올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연구학교 7개를 지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연구를 실시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활용 수업 혁신 우수 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학생 문화적 감수성 키워야…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 시급”

정 교육감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함께 협력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을 일률적 잣대에 따라 교육 및 평가하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며 “안타깝게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는데,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재정 축소는 정 교육감이 당면한 과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1850억원 세입 확보가 어렵게 됐다. 아울러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유아특별회계전입금은 4507억원,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전입금은 2515억에 달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체 세입 재원이 없어 예산규모 축소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교육청의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별 교육 격차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담=김희석 부국장(정책사회부장), 사진=손진영 기자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해 동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전남대에서 교수로 강단에 서기 시작해 2003년부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기간 평의... 이번주 후반 결론 전망

숙고 기간 길어지며 여론 과열양상 장외투쟁 등에 정치권 '올스톱' 상태 판결문 다듬기에 시간소요 예상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현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 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현재는 변론종결 이후 후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심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

만, 현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론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현재에 윤 대통

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 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현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 기각 의견을 내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美 민감국가에 韓도 포함... 정치권 책임 공방

與, '자체 핵무장론' 언급 등 영향 野 "與 경거망동에 경제 퇴행될 수도" 내달 15일 전까지 지정 해제 총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 상 전례가 없었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으나, 민감국가 목록

포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SCL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진 결과 나온 '미국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자 안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한국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기소 사건, 한미 '워싱턴 선언'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준수 조약 삽입, 윤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 보고 '자체 핵무장론' 언급,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핵무장 구상 발표 등 바이든 행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린 조치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의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과 트럼프 행정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준형 의원은 국제 통상이 큰 축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핵무장 추진에 따라오는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이란과 사

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위험 국가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믿을 수 없으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큰일 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NP-T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양쪽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레버리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외교 정상 채널이 가동되기 힘든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오는 4월 15일 전까지 민감 국가 목록 지정 해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감안하면 해제에 길이 보인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선부론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이 퇴행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을 두고 "당장 한미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 기관과 긴밀 협의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한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비판을 달게 받았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무위, 내일 '홈플러스 사태 긴급현안질의' 진행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에서는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배임 논란 등 각종 의혹과 책임론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 경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대

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1일 협의를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

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안질의에선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업계 전반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번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 해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담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전담채 사기발행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종신보험 반등 기대

당국,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대상 사망보험금 생전사용 지원 제도 해지율 감소·노후자금 확보 효과 고령 초점, 신규수요 한계 지적도

오랫동안 '죽어서야 쓸 수 있는 보험'이란 인식으로 외면받았던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의 노후생활비나 간병비 확보가 용이해져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진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형이나 서비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대부분이 대상이 될 전망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기존 종신보험이 주택연금처럼 사실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Chat GPT가 생성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이미지.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가 점차 증가해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며 "업계와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침체됐던 종신보험 시장이 이번 기회에 반등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망 시에만 의미가 있던 보험금이 노후 자금이 나 간병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해지를 고민하던 계약자들이 해지 대신 유동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유동화 방안으로 종신보험 가입자의 해지율을 낮추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신보험이 단순히 가족을 위한 사후보장 수단이 아니라 생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수령액이나 간병·요양 서비스 이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타 상품과의 차별성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으로 생명보험 업계에 다시 한 번 활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연금 상품의 경우 사망할 경우 보유했던 적립액만큼 받는데 이번 유동화 방안은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게 되면 그 차액 만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종신보험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유동화 방안이 고연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동화 방안 신청 자격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 계약자로 한정돼 새로운 젊은 수요를 확보할만한 동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65세 이상 계약자에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취지의 정책이겠으나 현재 신규 수요를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젊은 세대의 경우엔 매력을 느끼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28일까지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금융업, 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비(非)날인본·날인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등 6개다.

이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하기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최대 120일간 심사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줍줍 막차... 최대 5억 차익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오늘 2가구 무순위 청약 진행 5월 규제강화 앞두고 관심 ↑

아파트 분양시장은 위축됐지만 '줍줍(무순위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수 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고신도시의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이 17일 진행된다. 전용면적 69㎡는 전국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전용 84㎡는 수원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 가능해 청약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분양가는 2021년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전용 84㎡는 9억3620만원에 공급된다. 인근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투시도. /현대건설

전용 84㎡는 이달 1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전용 84㎡ 역시 17억~18억원대 시세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의 인기 요인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다. 최초 분양당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시 수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 4일 진행된 '복수원자이 렉스비

아' 무순위 청약에는 단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9120만원이지만 최근 호가는 9억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어 당첨만 되면 3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파주 '파주온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 1가구 모집에는 1만 6128명, 같은 지역 '파주온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에도 1만1156명이 신청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지자체별로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규제 시행 후 신청자가 약 60% 감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

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도 무순위 청약 시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경쟁률 과열 현상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았던 곳이지만 일반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들은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쏟아지는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무순위 청약에서도 수요가 쉽게 불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인기를 끌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세 대비 저렴한 단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프로젝트 퍼스트 착수

하나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퍼스트(FIRST)'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하나은행의 1단계 ICT 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O.N.E(Our New Experience)'에 이은 2단계 프로젝트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손님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힘을 합쳐 하나은행만의 손님 중심 DNA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를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 재구축을 포함해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 등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거래 시작부터 상품 추천 및 가입까지 끊임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 경험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기업뱅킹 및 마케팅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가속에도 집중한다.

민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혁신'도 실시한다. '하나원큐 앱'이 새롭게 구축되며, 손님의 거래 유형을 분류해 손님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거래 속도로 비대면 채널이 최적화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보험회사 자회사, 요양기관 연계 유통업 영위 허용

금융위, 미래대비과제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비 업무 확대 요양·헬스케어 등 수행 가능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푸드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토티·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의 진출 실무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회사·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요양, 건강관리

(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 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시설을 운영하며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에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토티·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토티·저해지 연금은 연금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한다. 토티·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컨버전스 산업생태계

건축 뛰어드는 가전업계 ‘주거·가사’ 신사업 예고

직접 건축 통해 스마트홈 주도권 확보
로봇 사업 고도화... 일상 전반 혁신

성장 정체기에 직면한 가전 업계가 ‘원스톱 주거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공간을 제공하는 모듈러 건축 사업에 뛰어들어 스마트홈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휴머노이드 가사 로봇을 통해 가사와 주거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가전업계가 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데는 스마트홈 사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간 스마트홈 선택권은 고객이 아닌 건설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가전업계가 직접 건설에 뛰어들면 이같은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간접형태로, LG전자는 자체 건설을 통한 직접형태로 모듈러 건축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스마트 싱스 프로’를 파트너사인 유창이앤씨의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한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시설부터 상업 시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등을 비즈니스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B2B 솔루션이다. AI 가전은 물론 온도·동작 센서 도어 등 건축물의 공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해 통합 관리·제어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듈러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집약한 ‘LG 스마트코티지’를 본격 출시하고 시장 리더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마트코티지 사업을 본격화한 후 두 달 만에 SM엔터테인먼트 연수원에 LG 스마트 코티지 3개동을 공급하는 등 첫 기업간거래 고객을 확보했다. 회사는 전북 김제에 ‘LG 스마트



강원도 SM 연수원에 설치된 LG 스마트코티지 모습. /LG전자

코티지’ 견본주택을 설치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 판매 중이다. 해당 주택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LG전자 히트펌프 냉난방공조 시스템과 AI 가전을 기본옵션으로 모두 갖추고 있다. 지붕 부착 태양광 패널 옵션을 선택하면 필요한 에너지 상당량을 자체 생산한다.

가전 업계는 ‘가사 해방’의 기치아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380억달러(약 54조875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삼성리서치를 포함한 유관 부서 인력 40여명을 미래로봇추진단에 투입했다. 미래로봇추진단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신설한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 이사 부회장 직속 조직이다.

LG전자에서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로봇선행연구소가 휴머노이드 선형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AI 기반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총 51%를 확보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능성 소재’ 경계 확장 항균·열 제어 등 차별화

전자업계, 차별화 기술로 시장 개척
스마트 양식,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성과

‘기능성 소재’가 전자업계를 넘어 스마트 양식, 의료,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차별화된 소재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 양식 기업 ‘에코아쿠아팜’과 협력해 항균 기능성 소재 ‘퓨로텍’을 스마트 양식장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육상양식플랜트 제조 위생 강화’를 위한 퓨로텍 적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퓨로텍은 항균 및 항곰팡이 기능성 소재다.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 등에 첨가하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해 악취, 오염, 변색을 방지한다. 밀가루 입자의 1/10 크기인 약 4μm(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로도 높은 항균 성능을 발휘해 경제성과 범용성이 뛰어나다. 퓨로텍은 양식장의 가공실 바닥, 벽면, 저장소, 포장지, 가공 설비 등에 적용돼 세균과 곰팡이 생장을 억제하고 연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식품접촉물질(FCS) 승인을 받아 퓨로텍을 식품 포장재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스마트양식뿐만 아니라 식품가공·유통, 의료, 건축 자재 등 다양한 B2B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재활용 소재 적용을 대폭 확대했다. 갤럭시 S25와 S25+의 모든 외장 부품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으며, 제품 전·후면에 재활용 글라스, 측면의 사이드키·볼륨키 및 SIM 트레이에



LLG전자가 B2B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균 기능성 소재 ‘퓨로텍’을 식품 가공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능성 소재를 개발 중인 연구원의 모습. /LG전자

재활용 알루미늄을 적용했다. 특히 갤럭시 S25에서는 자사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코발트를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까지 갤럭시 스마트폰에 사용된 재활용 코발트는 200톤에 달한다. 또한 롯데케미칼과 협력해 폐반도체 웨이퍼 트레이를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도입, 갤럭시 S25의 여러 부품에 재활용 폴리카보네이트를 적용했다.

화학·소재 기업들도 기능성 소재 기술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열폭주 억제 소재를 지난해 말 개발했다. 이 소재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복합 물질로, 온도가 오르는 초기 단계에서 전기 흐름을 차단하는 ‘퓨즈’ 역할을 한다. LG화학은 모바일용 배터리에 대한 열폭주 억제 소재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마치고, 대용량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테스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 소재는 소비자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며 “전자업체들이 신소재 개발을 통해 기업 간거래(B2B)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조선업계, 업황 기대이하... ‘선별수주’ 속도

글로벌 선박발주 감소... 선가 등 영향
고부가 선박 중심 점유율 확보 나서

조선업계에 연이어 호재 소식이 들려오지만 업황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선박 발주 둔화와 수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조선 빅3(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누렸던 슈퍼 사이클(호황기)이 예상보다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조선업계는 당분간 신조선 발주 흐름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글로벌 누적 선박 발주량은 384만 CGT(표준선환산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발주 감소의 원인으로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주 선가와 수주잔고가 지목된다. 특히 LNG운반선 기준 건조기간은 일반적으로 30개월 정도이나 현재 대부분의 조선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조 슬롯(도크)은 2028년 하반기 이후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이는 평상시보다 1년 이상 인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높

은 선가와 긴 납기가 선주들의 발주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국내 조선사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달 중국의 전세계 수주잔고 점유율은 59.4%로 지난해 50.1%보다 상승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 2024년 29.3%에서 올해 23.8%로 낮아졌다. 수주잔고의 절대량도 중국은 지난 2008년보다 25% 증가한 9273만 CGT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지난 2008년보다 44.8% 감소한 3713만 CGT에 그쳤다.

국내 조선소별 수주잔량은 현재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올해 신규계약 일감이 줄어들면 10여년 만에 찾아온 호황기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선박 발주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시사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업 제제조

치 발표 이후 실제 발효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두며 시장의 광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선사 MSC는 USTR 제제조치 발표 당일 중국으로 2만2000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크기)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발주했다. 그리스 선사 카디프 또한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을 중국으로 발주한 바 있다. 향후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향 발주를 지속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선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선불리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도 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신규 수요 감소로 인한 전체 수주량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하면서 올해 신조선 발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고려아연·영풍 ‘상호주 형성’ 신경전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 vs “억지 주장”

이달 말 정기주총 앞두고 긴장 고조

고려아연과 영풍이 이달 말 정기 주총회를 앞두고 또 다시 ‘상호주 형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과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억지 논리로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는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영풍과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달 말 진행되는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관련,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회사(SMH)가 다른 회사(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

는 모회사(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MBK의 적대적 M&A 성공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로부터 SMH와 SMC의 기업가치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려 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동그룹, 제주 테마파크 ‘승부수’ 스마트팜·푸드테크 전초기지 구축

지난해 제주 애월 22만평 부지에 대형 키즈파크·식물정원 등 조성 1차 오픈 후 54만명 관광객들 방문 195실 호텔·70실 콘도 내년 착공 임예환 경영총괄 “푸드테크 거점 도약”

농기계 제조업이 모태인 대동그룹이 제주에서 미래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형 식물정원, 키즈 파크, 카페 등을 열어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 콘도 등 복합상업시설도 내년에 본격 착공한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푸드테크 사업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연간 80만명이 찾는 ‘제주 1등 관광지’를 목표로 하는 계획도 세웠다.

16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그룹사 제주대동이 개발하고 있는 애그테크밸리는 제주 애월 봉성리 일대 약 73만9000㎡(약 22만평)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새별오름이 바로 옆에 있다.

대동은 지난 2013년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개발하는 사업에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자본금 500억원의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제주대동을 설립하고 일명 ‘Project ECO’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동제주는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제주당 카페, 아르떼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아르떼 키즈 파크는 미디어 전시관



제주대동이 제주 애월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조감도.

‘아르떼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디스트릭트와 공동 투자해 국내 최초로 개관한 미디어 기반 실내 키즈파크 시설이다. 8만5000㎡(약 2만6000평) 공간에 농업을 테마로 한 식물정원 ‘그레이트필드’도 열어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대동 관계자는 “아르떼 키즈파크에만 지난해 21만명이 방문했고, 식물정원에는 개장 이후 33만명이 찾는 등 총 54만명의 관광객들이 오면서 제주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대동이 만들고 있는 ‘그린스케이프 관광단지’는 퍼블릭 존, 프라이빗 존, 스마트 존으로 나뉜다. 올해엔 ▲제주당 품질·서비스 수준 제고 ▲콜라보 팝업스토어 발굴 ▲5월 가정의달 이벤트 등을 통한 야외공간 명소화 ▲제주도내 1등 키즈파크 공고화 ▲렌터카, 주변 관광지 상호 할인 등 제휴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프라이빗 존 개발도 본격화한다. 여

기에는 조선히otel리조트와 위탁경영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195실 규모의 호텔, 70실 규모의 콘도, 회원제 스파 등의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설계, 건축허가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대동 임예환 경영총괄은 “대동이 개발한 기능성 특화 작물을 대규모로 연구하는 스마트팜과 관련 시설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역 기반 사업을 통해 제주도와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대동을 대동의 미래사업인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947년 경남 진주에서 대동공업으로 태동한 대동그룹은 대동기어, 대동금속, 대동모빌리티, 대동로보틱스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조원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해치백 명가’... 新골프 앞세워 국내 반격

폭스바겐코리아

올해 상반기 신차 4종 추가 출시
골프·ID.5 등 상반기 라인업 총공세

‘해치백 명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명성 회복에 나선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4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8.5세대 골프 출시행사를 열고 가솔린, 디젤, 전기차 등 올해 상반기에만 총 4종의 신차를 추가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며 “골프 TDI 모델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5’와 준대형 SUV ‘아틀라스’, 고성능 모델 ‘골프 GTI’까지 신차 3종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연기관 3종과 전기 1종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다. ID.5는 2025년형 신모델로 국내 고객에 선보일 계획이다.

첫 시작은 골프다. 골프는 국내 법인을 설립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만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이 14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8.5세대 골프를 소개하고 있다.

4644대가 판매되며 수입 해치백 중 처음으로 5만대를 돌파했다. 이번 신형 골프는 2.0L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의 조합으로 150마력(3000~4200rpm)의 최고출력을 낸다. 특히 일상 주행 영역인 1600~2750rpm에서 36.7kg·m의 강력한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엔진에는 두 개의 질소 산화물 저감장치(SCR) 촉매 변환기를 적용해 이전 세대보다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였다. 공인 복합연비는 17.3km/L(도심 15.2km/L, 고속 20.8km/L)로 동급 컴팩트 세그먼트 모델 중 최고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연비·공간·안전 다 갖춘 패밀리 SUV ‘대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반년 만에 판매 1만대 돌파

포근한 봄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공간성과 안전성을 갖춘 패밀리 SUV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야심작 ‘그랑 콜레오스’는 출시된 지 반년 쯤 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대세 패밀리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코리아의 역대 신차 중 가장 빠르게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또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 등에서 ‘2025 올해의 SUV’로 선정되며 안전성과 기술력 등을 입증하며 대세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길이 4780mm, 폭 1880mm, 높이 1680mm의 큰 차체와 동급 차량 중 가장 긴 휠 베이스(2820m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

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034L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한다. 또 첨단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차량 전반에 흡차음재를 활용해 고급 세단 못지 않은 정숙한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대세 패밀리카’답게 탄탄한 기본기도 갖추고 있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인 245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15.7km/L의 공인 복합연비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일반 내연기관인 2.0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 211마력을 뽑아내고 최대 토크 33.2kg·m/2000~4500rpm에서 발휘할 줄 아는 SUV다.

패밀리카 선택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성도 놓치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검증된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고강도 ‘핫 프레스 포밍(HPF)’ 부품을 동급 최대인 18% 비율로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송병준 “벤처 생태계 판 바꿀 혁신정책 절실”

벤처기업협회장에 송병준 의장 선임 창업 감소·적자 지속 생태계 혁신 시급 AI·글로벌 전환 통해 강력 개혁 추진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28일 제12대 회장에 1976년생의 젊은 리더인 컴퓨터 송병준 의장(사진)을 선임한 가운데, 위기의 벤처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모바일 게임 1세대이자 2000년대 초부터 게임 산업 성장을 이끌어온 ‘젊은 벤처 기업인’이 이끄는 벤처협회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 지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송의장의 도전·혁신 정신이 벤처업계 위기 극복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현 국가 위기 돌파 위한 강력한 개혁 필요”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벤처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1순위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 벤처생태계 조성, ▲창업 붐 확산 및 글로벌화, ▲AI 산업 육성 및 전환 주도, ▲혁신산업 분야 대표단



체의 외연 확장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다.

송 회장은 “벤처생태계에선 4년 연속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말 전체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199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위기 돌파를 위한 강력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벤처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벤처업계에 그 어느 때보다 반등을 위한 성공의 노하우가 절실한 상황에서 송 회장이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 길을 여는데 이바지할 책임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컴투스, 미개척지 도전 벤처 정신 산출 송 회장은 2000년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체 컴투스홀딩스(전 게임빌)를 설립하며 벤처 기업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 모바일 게임 1세대로 현재까지 게임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송 회장은 컴투스홀딩스 설립 당시 한국 게임 산업에서 다소 생소한 모바일에 과감히 도전했다. 국내에서는 PC 온라인

기반의 게임이 주를 이루던 2000년대 초, 새로운 분야인 퍼즐 게임 개발에 매진하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토대를 일구고 성장시켰다. 산업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개척지에 과감하게 도전한 벤처 정신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사업 초창기부터 글로벌 진출에 속력을 낸 결과 지난해 게임 사업 부문 전체 매출의 70%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글로벌에서 대 성공을 맞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2017년 한국 모바일 게임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모바일 야구 게임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NPB 공식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한국 게임업계에는 미개척지인 일본 야구 게임에도 진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선다.

송 회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태계 판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정책이라는 우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진 “마라톤과 함께, 물류도 완주한 동행”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 수행

한진은 국내 최대 규모 마라톤 대회의 행사 물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열린 서울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의류와 장비 등 개인 물품을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운송했다.

마라톤 대회 물류는 수만명의 참가자가 출발점에서 맡긴 개인의 의류와 각종 물품을 특정시간 내에 결승점에서 돌려줘야 하는 특성상 정확성과 신뢰도가 필수다.

한진은 이번 행사를 위해 예비차량 5대를 포함 1톤 택배차량 100대를 투입했으며 이상무를 사전점검했다. 또한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이동경로를 사전답사하고 행사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택배기사들과 운영 담당자들이 직접해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다.

이외에도 수만명의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번호표, 티셔츠 등 개별 대회 물품의 사전 택배 배송도 함께 수행했다.

한진 관계자는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물류수행에 총력을 다했으며, 참가한 택배기사와 지원인력들도 국내 최대 마라톤 대회의 성료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스포츠 외에도 전시, 이벤트 등 각종 국제행사 물류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AI만을 이용한 영화·영상 등장... 기술발전으로 한계 극복

모프 기능으로 연속적 시각변화 구현 AI필름·전문제작 스튜디오도 등장 기존 영화산업 위협 우려엔 회의적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본격적인 'AI 영상' 시대가 열리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필름으로 불리는 생성형 AI만을 이용해 제작된 영화와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빠르게 발전한 AI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영상 생성형 AI는 그동안 동일한 캐릭터와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점은 AI 필름 또는 만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컴퓨터와 AI 지식이 필요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그림 생성형 AI '미드저



이미지 생성형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통해 같은 얼굴로 생성된 그림들의 모습. 과거 AI는 캐릭터 또는 배경을 일관되게 생성할 수 없었으나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며 동일한 캐릭터 생성이 가능해졌다. /캡처

니'와 동영상 생성형 AI Veo 2 등이 모프(Morph) 기능까지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모프는 두 개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부드럽게 변형하여 연결하는 기술로, 연속적인 시각적 변화를 구현할 수 있다.

IT·미디어 업계에서 모프 기능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에는 기술적 난이도도 있지만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한 만큼 향후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모프 기술이 공개되기 이전, 기존 AI 영화들은 생성

형 AI만으로 제작하기보다는 후반 작업(보정, 장면연결, 편집 등)에서만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영상 전체를 AI로 작업할 수 있게 되며 유튜브에는 'AI 필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모든 작업을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인간은 영상의 각본과 편집만을 담당하는 식이다.

AI 필름 전문 제작 스튜디오도 등장했다. 국내 최초 AI 영상 프로덕션(㈜스튜디오프리일루전은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20여 개의 AI 영화를 공개했으며 소속 AI 아티스트인 정은욱 감독은 국내 최초로 배우의 IP를 이용해 AI로 제작한 영화 '나야, 문희'로 단편 영화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I 영화 스튜디오가 아닌 개인들도 제작한 AI 영화를 공개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유튜브 '로봇손'은 동영상 생성형 AI인 '미니맥스 하이루오' AI를 이용해 '북부대공은 흰 토끼에게 집착

하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로맨스 판타지 영화를 공개했다.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만3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업계 종사자들은 AI 필름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기존 영화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AI 영화 등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들이 수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고퀄리티의 AI 필름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I 필름의 발전은 결국 기성 영화 수준에 이를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영화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갖는 복잡한 창의적 문법을 과연 AI가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中,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 통해 자립화 속도

중 기업 오픈소스 활동량 119% ↑
딥시크 R1 등 가시적 성과 도출
IITP "韓, 글로벌 협력 필요" 조언

중국이 국가주도의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술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한 오픈소스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디지털 주권 확보를 현실화했다. 한국도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협업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중국의 오픈소스 정책 등을 분석한 'ICT(정보통신기술) 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중국 기업들의 오픈소스 활동량이 119%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상위 25개 기업의 평균 증가율인 8.9%의 약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활동량은 오픈소스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GitHub)'에서 개발자나 기업 계정이 수행한 모든 공개적인 기여 활동(코드 기록·피드백·수정 및 병합 요청, 프로젝트 관리 등)의 총합을 의미한

다. 같은 기간 화웨이는 605%의 폭발적인 활동 증가세를 나타냈다.

IITP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 오픈소스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자체 인프라 구축 등으로 독자적 오픈소스 생태계를 급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깃허브와 유사한 코드 호스팅 플랫폼 '기티(Gitee)'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작년 기준 약 1350만명의 개발자와 1000만개 이상의 리포지토리(코드 저장소)를 확보했다. 2014년 20만명에 불과했던 개발자 풀이 10년 뒤 67.5배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정책은 딥시크의 R1 공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에 대응하는 독자적 생태계 구축의 상징적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R1은 올 1월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추론형 AI 모델이다.

딥시크사는 600만달러(약 87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GPT-4와 유사한 성능

을 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해 세계 AI 시장에 충격을 줬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운 오픈소스 AI 모델의 글로벌 확산으로 기술 접근성이 향상되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AI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텐센트는 기업 위젯에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 딥시크-R1을 탑재해 기업용 메신저 시장의 AI 기능 대중화를 촉진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교육 플랫폼인 '루앙구르(Ruangguru)'는 중국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을 도입,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다.

IITP는 "우리나라는 AI 관련 기술 수준, 자본, 인력 등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여전히 격차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과기부, 올해 과학기술 혁신에 6.6조 투자

17개 시·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20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의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6조506억원(중앙정부 5조545억원, 지자체 9961억원)을 지역에 투입해 우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발굴·육성(2조 1075억원) 및 지역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3041억원) 등에 중점 투자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총 6조6528억원(중앙정부 5조 6914억원, 지자체 9614억원)을 투입해, 창업·기업 경쟁력 제고(1조6210억원), 지역 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5153억원),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1조 801억원) 등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에 기반하여 기획된 지자체 주도의 2026년 신규 사업(안)은 소관 부처와 예산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서현 기자

KT 블루보드, AICT 경쟁력으로 AX 확대

'AX 일 방식 확산' 프로젝트 진행

KT가 2025년 KT 청년 이사회 '블루보드'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블루보드는 KT가 2001년부터 25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문화 강화 프로그램이다.

블루보드로 선발된 직원들은 KT의 AICT 서포터즈로서 사내의 AX 확산을 이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블루보드는 2030세대 직원들로 뽑히며 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핵심 사업 등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적용까지 진행한다.

KT는 올해 블루보드 활동 슬로건을 'KT, 혁신과 성장 사이에'로 정하고, 만 39세 미만 과장급 직원 86명을 선발했다. 올해 블루보드는 A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의 AX 확대를 위



2025년 KT 블루보드로 선발된 직원들이 올해 활동 슬로건인 'KT, 혁신과 성장 사이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는 경영 전략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비롯한 업무 혁신 도구의 사용을 전사로 확대하는 'AX 일 방식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취약 계층의 AX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등 AICT 서포터즈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ESG 가치 창출도 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LG U+, 프로야구 굿즈 오프라인 매장 열어

잠실야구장 인근 위치

LG유플러스가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스포츠 굿즈에 특화된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첫 번째 매장은 잠실야구장 인근인 서울시 잠실동에 위치한 '일상의틈 잠실새내 직영점'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일상의틈 잠실새내 직영점을 스포츠 굿즈 전문 매장으로 전환했다.

일상의틈 잠실새내 직영점은 기존 통신 상품 판매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LG트윈스의 유니폼과 굿즈를 판매하는 '숍인숍' 형태로 운영된다. 프로야구 경기장 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니폼을 포함한 각종 굿즈 판매를 한번에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굿즈 판매 외에도 스



LG유플러스 모델이 스포츠 굿즈 전문 매장으로 세단정한 일상의틈 잠실새내 직영점에서 LG트윈스 콜라보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포츠 팬들이 매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포토카드 키오스크도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회사가 보유한 캐릭터와 LG트윈스 콜라보레이션을 확대해 다양한 전용 굿즈를 제작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올해들어 100% 꺾충... “韓 방산株, 아직 상승여력 충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EU 23개국, 국방비 2%→3.5% “韓 유효시장 154조, 전체 26%” 증권가, 관련주 목표가 줄상향



ChatGPT로 생성한 ‘주가 상승 중인 K-방산 기업들’ 이미지.

유럽의 방위비 증액 등으로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질적·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동이나 폴란드 등 해외에 무기를 판 적은 많았지만, 전세계 각국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각각 115.93%, 104.43%씩 급등했다. 코스피 중에서는 3·4위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98.92%), 한국항공우주(56.10%), 풍산(29.52%) 등도 투자자들의 사냥감이다.

외국인도 방산주 소유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항공우주(1197억원)와 현대로템(7011억원)을 순매수 상위권에 올려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 기대감이 오르면서 방산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58조원) 동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

다. EU의 재무장 계획대로라면 EU 내 23개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현재 2% 수준에서 약 3.5%까지 올려야 한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나토(NATO) 소속 유럽 국가·캐나다(미국 제외)의 국방예산은 9179억달러(1334조원), 무기조달

예산은 국방예산 내 비중 45%로 가정 시 4092억달러(593조원)를 예상한다”며 “그중 한국 유효시장은 1066억달러(154조원)로 전체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멀티플(주가의 이익배수)을 높여갈 유인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각국의 국방비 지출도 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2023년 2조4600억달러(약 3593조원)로 전년 대비 7.4% 늘어나며 사상 최대였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유럽 각국의 군비 증강 기조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이익 성장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방산”이 앞으로도 해외에서 잘 팔릴 거라고 보는 쪽에선 국산 무기체계의 ‘가성비’와 ‘경쟁자의 부재’에 주목한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 하고, ‘전차 강국’ 독일도 명성이 예전만 못하

다. JP모건은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한국 방산 업체의 신규 수주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한국 방산 업계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plenty of room to go)”고 진단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방산주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업 보고서를 낸 18곳 모두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주(3월 10~16일)에도 BNK투자증권, KB증권 등이 목표가를 올렸다. 특히 BNK투자증권은 기존 65만원보다 36.8% 높은 100만원으로 올리면서, 최고가를 제시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가장 높은 목표주가는 15만원으로 교보증권이 제시했으며, 이번 주 들어 미래에셋증권과 BNK투자증권도 14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14일 종가 기준 현대로템의 주가는 10만1600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Q&A

‘손실 보상금’ 명목 가짜코인 지급 사기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식에 걱정되기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솔깃할만한 문자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전화,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합니다.

‘손실 보상금이 너무 많아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로또 개인정보 유출 불법 업체 환수금이 코인이다’,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코인으로만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코인 지급을 위해 자체 개발한 코인 지급 사이트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처음 약속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을 지급한 후,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정부기관 명의의 공문 등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셋째, 코인 지급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허정윤 기자

“새 유형 비료 개발, 글로벌 농업시장 확실한 성과 만들 것”

코스닥 CEO 인터뷰

김창균 누보대표

“기본 비료는 노동 집약적인 구조 기술로 용출속도 360일까지 조절”

코팅비료 등 30개국 이상 수출 생분해 코팅 소재적용 비료 개발중



김창균 누보 대표. /누보

“농업의 세계화, 농업으로 세상의 미래를 열겠다.”

기술 기반 농업 전문 기업 누보가 국내외 비료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김창균 누보대표는 인터뷰에서 회사의 비전과 성장 전략,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비료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술로 혁신 일으켜

누보는 ‘글로벌을 향하는 기술 기반 농업 전문 기업’을 모토로 성장해왔다. 김 대표는 농업을 전공한 뒤 농업 회사에서 일하면서 비료 산업의 비효

율적인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비료 사용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기존 속효성 화학비료는 지속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구조였다”며 “기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누보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누보는 용출 제어형 코팅 비료(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CRF) 제조 기술과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비료 원

료에 코팅 기술을 적용해 용출 속도를 최대 360일까지 조절할 수 있다”며 “비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동력과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력은 누보가 국내 비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는 기반이 됐다.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성장 구조 구축

누보는 ▲국내 농업 ▲해외 사업 ▲골프장 및 조경 사업 ▲가정원에 사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 부문에서는 기능성 코팅 비료와 유기농업 자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고기능성 코팅비료와 농식품 제품을 3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골프장 및 조경 사업에서는 골프장 전용 자재 생산 및 유통, 골프장 코스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정원에 부문에서는 브랜드 ‘닥터조’를 필두로 가정용 식물 영양제를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누보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라며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기존

비료와 달리, 용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비료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비료 개발로 미래 농업 선도

현재 누보는 생분해 수지를 적용한 완효성 코팅 비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코팅 비료는 사용 후 잔여물이 남는 문제가 있었지만, 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 코팅 소재를 적용한 비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생분해 코팅 비료는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효율적인 개발 및 빠른 사업화를 위해 SK리비오와 협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올해를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의 해’로 삼고 있다. 그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소통 채널을 마련했고, 증권사 및 투자 기관에서 주관하는 IR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며 “누보는 현재 3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 사들여

개인·일반법인 판매액 5400억 불완전판매 의혹 본격 제기될 듯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판매 규모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채권 판매잔액 6000억원 중 대다수가 개인·일반법인에 떠넘겨진 셈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

(676건)으로 파악됐다.

일반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192건)이다.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부분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및 일반법인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대형 회사 사건으로 번

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달에만 총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사채 160억원(4회), CP 130억원(3회) 등 순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이후에도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반도체 수출, 10개월 만에 100억弗 붕괴... 15개월 상승세 '끝'

산업부, 2월 ICT 수출입 동향
 단가 하락·중국 부진에 여파 커
 ICT 전체 수출 역대 2월 중 2위
 휴대폰·PC 덕에 전체 수출 선방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단가 하락을 비롯해 중국 시장 수출 부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휴대폰·컴퓨터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실적은 역대 2월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2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ICT 수출은 16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165억1000만 달러)이 비해 1.2% 늘었다. 수입은 109억 달러로 전년동월(103억1000만 달러)보다 5.6%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58억1000만 달러



국내의 한 반도체 생산공장 내부. /뉴시스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역대 2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이라며 "전월(-0.4%)의 감소세에서 반등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 회복세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96억5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0% 감소했다. 반도체 부문 수출이 월 100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그간의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난달 멈추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메모리반도체(NAND 등)의 단가 하락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공정 전환으로 인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D램 단가는 지난해 4월 2.1달러에서 올해 2월 1.35달러로 하락했다. 낸드 단가도 4.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월에 2.29달러까지 내렸다.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9.9%에 달했으나 11월 30.3%, 12월 31.1%, 올해 1월 7.7% 등으로 둔화 흐름을 보여 왔다. 이후 2월 들어 뒷걸음질했다.

디스플레이 수출 역시 14억7000만 달러로 5.1% 감소했다. 중국의 패널 공급 과잉 및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다.

이에 반해, 휴대폰은 1년 전보다 33.3% 늘어난 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생산기지가 위치한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인도 등지에 부품 수

출이 늘어났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9억4000만 달러로 26.9% 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가 늘어난 데 힘입었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 수출은 6억2000만 달러(+38.9%)로 14개월째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74.1% 증가한 3억4000만 달러였다.

수출 대상지별로 보면 베트남(+15.6%), 미국(+11.5%), 대만(+124.3%), 인도(+54.9%) 등에서 ICT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홍콩포함, -19.6%), 유럽연합(-7.6%), 일본(-5.7%) 등에서 감소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대 중국 HBM 수출 제재 탓에 반도체 수출(-31.8%)이 전년동월 대비 급감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9억 달러로 반도체(+5.2%), 컴퓨터·주변기기(+3.5%), 휴대폰(+8.6%)의 증가로 5.6%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협찬 안 밝혀'... SNS 뒷광고 2.2만건 적발

공정위, 인스타·블로그 등 집중 점검
 솟음 늘어 표시 위치·방식 부적절 다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배포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른바 '뒷광고' 의심 받는 사례 2만200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기업에서 협찬(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품 사용 후기 형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사진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 의심사례 2만201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후기 글을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명령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서 39.4%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또 2024 사례 중엔 솟음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솟음 콘텐츠 영상제작자·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컬처핏' 본다

(조직문화 적합성)

고용부, 지난해 하반기 채용동향 조사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직원 등의 채용 시 지원자와 조직문화 간 적합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능력과는 별도로, 회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는 등 조직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기업(387곳)의 61%는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이른바 '컬처핏'을 확인하고 있었다. 컬처핏은 문화를 뜻하는 '컬처'(culture)와 적합을 뜻하는 '핏'(fit)의 합성어이다.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

식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 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확인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아 팀워크가 좋아지고 장기근속까지 이어진다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컬처핏을 확인하면서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49.2%), '이직률 감소'(27.1%) 순으로 나타났다. 컬처핏을 평가하는 작업은 1차 면접(57.6%) 때 이뤄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최종면접(36.9%), 서류전형(32.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별도의 컬처핏 단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14%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구제역, 주말 새 영암 적고 무안도 뚫렸다

농식품부, 농가 주변 방역 등 분주

지난 14~15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16일 무안 지역의 의심사례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날 구제역 '심각단계'로 간주하는 시·군을 10곳으로 확대하고 백신접종 실시 및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의 한 한우농장주는 지난 15일 영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후 의심 증상(침 흘림)을 발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16일 오전 소 3마리에서 구제역 양성이 검출됐다. 이

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5건(영암 4건, 무안 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까지 확대했다. 총 10곳으로 영암과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이다. 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무안 발생농장에 대해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육소 전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이번 확산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 소재의 한 한



지난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소재 구제역 발생 소 사육농장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 통제선을 설치, 소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시작됐다. 이날까지 소 25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꼼꼼한 임상 예찰이 신속한 신고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도전하세요"

농식품부,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 기관과 함께 주관하는 이 대회는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팜맵 데이터 활용'과 '그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1차(서류), 2차(발표) 심

사를 거쳐 접수된 작품 중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 원이다. 이번 10회 대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10개, 후원대학 2→4개)했고, 시상 규모도 18점 6000만 원에서 19점 6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장과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부는 입상작의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IT 기술 교육,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작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잠자·영상·콘텐츠) 제작비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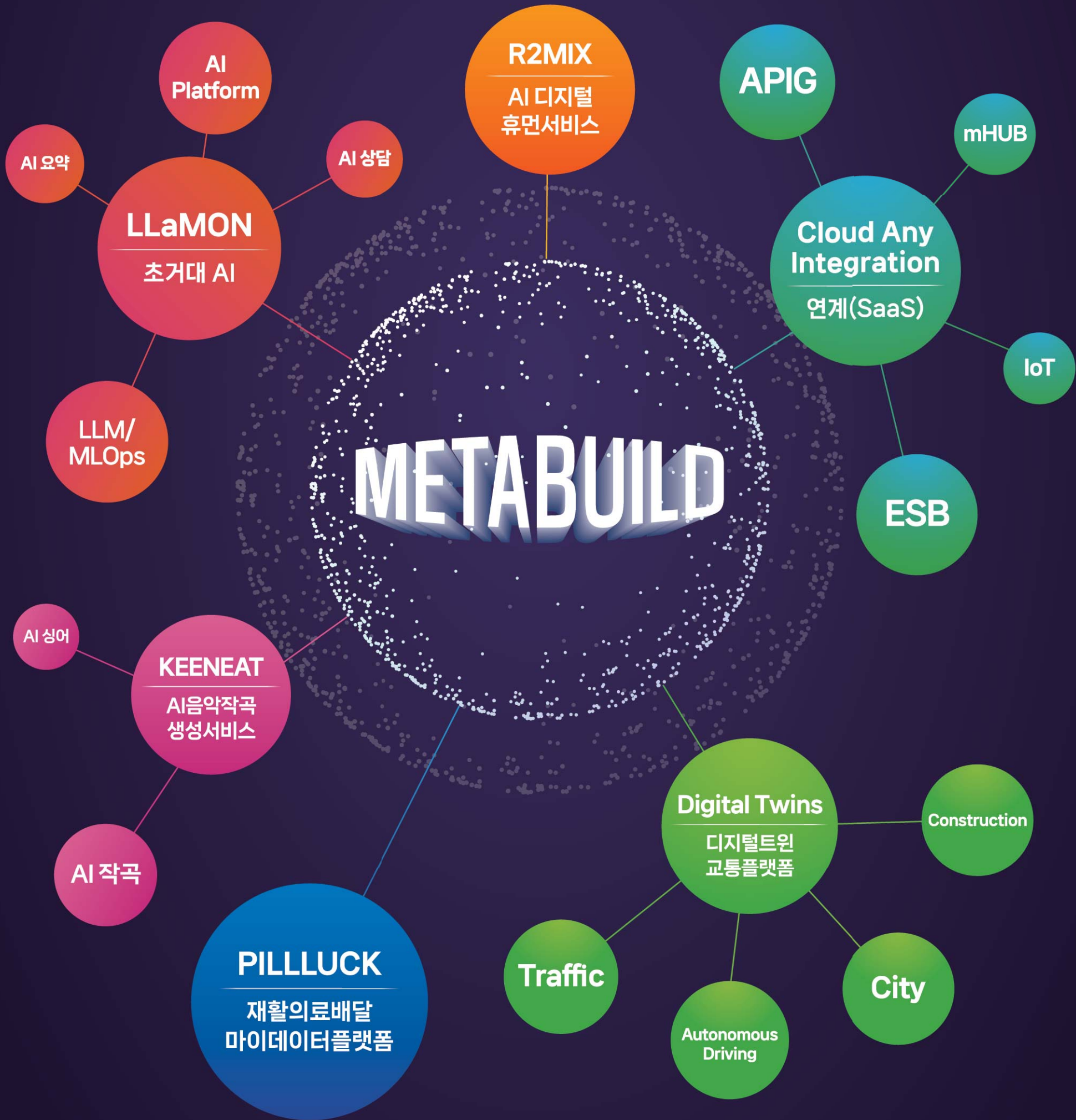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경북도, 의료시설·인재개발원 등 건립... 신도시 활력 높인다

신도시 진입 연계도로 9개 계획
K-과학자마을·단독주택지 등 공사
인구 증가는 아직 미미한 실정

경북도청 신도시가 올해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시설인 기인타워가 이달 중 개원돼 피부과, 성형외과, 소아과가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 신도시에는 한 곳도 없는 정형외과와 함께 치과(현재 3곳)에 대한 입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경북도 인재개발원이 준공된다.

내년에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경북도기록원, 경북중기음식체험관, 2027년에는 경북도립예술단, 경북사회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스포츠 캠프플렉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신도시 진입 연계도로는 모두 9개 노선이 계획돼 현재까지 4개 노선이 완공됐으며 이달 중 신도시와 풍천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0.5km(폭 21m)의



레이크빌리지

도로가 완공된다.
신도시~안동터미널, 신도시~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2027년 완공계획으로 있다.

호민지 인근에서 지난해 9월 스탠포드 호텔이 준공된 데 이어 지난 10일 착공된 'K-과학자마을'이 내년 6월 완공되면 현재 한창 조성 중인 인근의 '레이크빌리지'와 함께 호민지 주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K-과학자마을'은 전국 최초의 은퇴 과학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2만

8076㎡의 부지에 주택 45가구(38동), 주민 공동시설(쉐어오피스, 다목적홀,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호민지 옆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단독주택단지인 '레이크빌리지'는 109필지 가운데 48필지가 분양된 가운데 곳곳에서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 단독주택지는 분양이 미미한 인근의 한옥단지와 달리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꾸준한 계약이 이뤄져 모두

31필지가 분양됐다.

이처럼 신도시의 걸모습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나 인구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매년 12월 말 기준)는 2020년 2만24명, 2021년 2만1245명, 2022년 2만2061명, 2023년 2만2591명, 지난해 2만2787명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한 연간 인구 증가는 2020년 2581명, 2021년 1221명, 2022년 816명, 2023년 530명, 지난해 196명 등으로 매년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인재개발원이 들어서고 올해 상반기 이후 5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추가 공급과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준공되면 다시 인구 증가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전과 급효과가 큰 유관기관 이전과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첨단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에 힘을 써 신도시의 활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기장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등 견인

기장군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군은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하고, 이후 1시간 내 이동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 조치에 따라 PM 업체에는 기본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 요금이 부과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청년들에 지역기업 면접비 지원

대구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에서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대구 소재 기업의 면접에 참여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검토 후 승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타지역 청년이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을 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업에서 자체 면접비를 지원하거나,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등은 해당이 안되며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회 5만 원만 지원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해남군서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열려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선정
테마별 전시관, 프로그램 등 운영

전라남도는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을 선정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우수한 캠핑장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색적인 테마 캠핑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최적지로 해남군이 적극 추진했다.

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됨에 따라 전남도와 해남군은 전국에서 찾는 캠핑관광 박람회가 되도록 캠핑푸드관, 로컬푸드관, 반려동물관, 국제관 등 테마별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캠핑용품 DIY, 바비큐 체험, 밀키트 체험, 농활 체험, 세계캠핑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기도록 하느니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 공간 배치 및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가능



전라남도는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 공모 결과,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이 선정됐다. /전남도

한 캠핑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캠핑 팬투어 확대 등으로 향후 국제캠핑박람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올해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는 단순한 박람회를 넘어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페스티벌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캠핑 가족과 관광객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완도군, 장애인 복지 향상에 88억 투입

기초 급여 인상, 바우처 등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88억원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기초 급여액이 지난해 대비 7700원이 인상돼 34만 2510원으로 책정됐으며, 부가 급여 9만원을 포함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에는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에는 28억원을 편성

하여 활동 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서비스 질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총 18개소에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신장 장애인 투석비,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장애인 보조기기 등도 지원한다.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율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주시, 2028년 자산배수지 신·증설 목표

수돗물 안정적 공급

광주시가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확대한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 2028년까지 자산배수지를 새로 건설하고 지원 배수지는 2배 가량 증설한다.

'배수지'는 수돗물을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시설물이다. 높은 곳에 설치된다.

'자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304억4500만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1만4000㎥(고지 1만㎥·저지 4000㎥)와 송·배수관로(관 직경 D600~700mm, 연장 L=5.6km)를 신설한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공사는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8년 완공후에는 북구 두암동과 동구 산수·지산·지원동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증설이 추진되는 '지원배수지'는 총사업비 192억9900만원 투입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나주시, 소규모 현안사업 발주 80% 육박

지난해 대비 약 20% 상승 수치

전남 나주시가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소규모 현안사업 총 237건(190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80%에 육박하는 186건(101억원)을 조기 발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주를 대비 약 20% 상승한 수치다. 남은 물량도 조기 발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 나주에 사업장을 둔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나주시가 민생 안정 종합대책으로 추진한 '소규모 현안사업 신속 발주'

는 시 건설과에서 시설직 공무원 15명을 3개조로 편성해 꾸린 '자체 설계단' 운영이 주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업지역 조사 측량과 설계 등을 완료한 데 이어 자체 설계를 통해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마을 안길,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활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주민 애로 해소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윤병태 시장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 사업 89건(46억원 규모)도 자체설계단을 통해 내달 초 신속히 발주할 예정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BRT 정류장에 도시숲 조성

부산시는 가야대로 BRT 정류장 12곳(주례역~동의대역)을 사시사철 식물이 변화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정원형 도시 숲으로 조성한다.

시는 가야대로 BRT 정류장을 도심에서 자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주의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부산다운 차별화된 녹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주의 정원은 봄에는 새싹, 여름에는 싱그러움 초록빛, 가을에는 갈대와 단풍의 변화와 같은 모습들을 담은 작은 정원과 짧은 산책로가 조성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고서 빼고, 계약 종료... 식품·유통가 '김수현 지우기' 나서

배우 김수현 '사생활 논란' 휩싸여
홈플러스 '이즈 백' 광고서 내리고
뚜레쥬르, 김수현 모델계약 종료
아이더·비온드 등 비공개로 전환
최악엔 위약금 200억 추정하지만
적극대응에 물어낼 가능성 적어

최근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를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이 '김수현 지우기'에 나섰다.

식품·유통업계의 경우 광고 모델이 곧 브랜드의 얼굴이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는 기습적인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브랜드 모델인 김수현 논란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김수현을 창립 28주년 광고 모델로 재발탁하고 '홈플러스' 행사에서 김수현을 내세워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김수현과의 빠른 손절을 선택하며 자사를 향한 불필요한 부정적 여론 차단하기에 나섰다. 회사는 19일까지 열리는 '앵클! 홈플러스 이즈 백' 행사에서는 광고에 김수현을 내세



뚜레쥬르는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CJ푸드빌

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역시 김수현과의 모델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2012~2015년 뚜레쥬르 모델로 활동했으며 9년만인 지난해 모델로 재발탁된 상황이었다. 뚜레쥬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김수현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이 내려간 상태다.

K2코리아그룹 스포츠 패션 브랜드 아이더도 김수현을 지웠으며, LG생활의 뷰티 브랜드 비온드도 김수현의 광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수현은 신한은행, 조말론 런던, 쿠쿠, 샤브올데이 등 10개 이상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수현의 광고 모델료가 브랜드당 1년 기준 7억~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계약을 맺을 때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2~3배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위약금 규모는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현은 최근 고인이 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계

다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생활고에 빠진 고인에게 7억원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배우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귀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내용증명과 관련해서는 "내용증명은 그가 당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채무 관련해서 소속사와 고인 간의 문제였으며 김수현은 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소속사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위약금을 물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객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냐를 놓고 봤을 때 이성교제만으로는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김수현 사건으로 인해 식품업계를 포함한 기업들이 광고 모델 선정 시 겪는 리스크가 다시금 조망되고 있다.

앞서 2021년 4월 서예지는 당시 전연인인 배우 김정은을 조종했다는 의혹과 함께 학교폭력 및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던 식품·화장품 브

랜드들이 서둘러 광고를 삭제했고, 예정된 계약도 줄줄이 취소됐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광고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같은 해 10월 김선호는 전 연인의 사생활 문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김선호는 다수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논란 발생 직후 광고주들은 광고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고 계약을 정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논란이 해명되는 과정에서 일부 브랜드가 광고를 복귀시켰으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모델 선정 시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결국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연예인 모델보다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캠페인이나, 가상 모델을 기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했던 브랜드들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김선호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다시 기용된 사례를 감안하면, 김수현의 향후 행보 역시 그의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울렛들, 봄 수요 잡기 '대규모 할인전'

롯데, 전지점 '뉴 시즌 세일 스타트'
현대, 8개 점포에서 23일까지 행사
마리오, 100여개 브랜드 참여·할인

주요 아울렛들이 봄맞이 패션 수요를 잡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객이 증가하자, 봄철 특수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아울렛들이 대규모 브랜드 참여 행사를 열며 본격적인 봄맞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아울렛은 이달 23일까지 전 점에서 '뉴 시즌 세일 스타트' 행사를 열고 봄맞이 고객 잡기에 나선다. 롯데아울렛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년 대비 브랜드 참여율을 20% 이상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남성·여성 패션, 스포츠, 골프,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키즈·리빙 상품군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달 26일까지 봄맞이 골프 및 등산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도 열린다. PXG, 타이틀리스트, 지포어 등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선보인다. 이달 19일까지는 K2, 아이더, 블랙야크 등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가 'K2 플라이하이크 밴치 신발', '아이더 코어2L 고어텍스 방수재킷' 등 인기 아웃도어 제품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현대아울렛도 이달 23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8개 점포에서 대규모 쇼핑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패션·여성 패션·아웃도어 등 200여 개 브랜드의 봄·여름(S/S) 이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게스, 리바이스, 안다르, 쟁시미스, 마리떼프랑소와저버 등 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를 기념해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대전

점·스페이스원 등 3개 점포에서는 '현대(현대아울렛)의 생일 파티'를 주제로 레고 월드 팝업스토어를 연다. 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대전점 등 5개 점포에서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도시-팝 놀이터' 행사를 진행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마리오아울렛도 100여 개 유명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3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여성 패션 브랜드 에폴드빠리, 아르테와 남성 패션 브랜드 에디션, 바소움트가 행사에 참여해 최대 90%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온라인몰에서도 봄맞이 행사가 열린다. 마리오아울렛의 공식 온라인몰인 '마리오몰'은 이달 17일부터 ▲써스테이 아일랜드 ▲빠니갈레&인디안 ▲에스콰리아 ▲지프 등 브랜드를 최대 95% 할인하는 '마리오 단독 특가전'을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롯데온, 계열사 혜택 통합 '엘타운' 오픈

롯데시네마·세븐일레븐 등 12곳 참여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이달 17일 롯데 계열사 혜택을 통합한 '엘타운(L.TOWN)'을 정식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그룹의 유통, 식품, 서비스 계열사를 연결하는 디지털 게이트웨이 역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엘타운은 롯데온이 운영해 온 '월간 롯데' 프로젝트를 확장해 만든 종합 쇼핑·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기존 롯데온이 '월간롯데'를 통해 롯데 계열사의 할인 및 증정 행사를 월 단위로 소개

해 왔다면, 이번 엘타운은 이를 한층 강화해 다양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엘타운 오픈과 함께 '롯데 갈 땀 롯데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롯데온 측 설명이다.

첫날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12곳이 참여한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할인 ▲세븐일레븐 3000원 쿠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이용권 특가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등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CU, 강아지의 날 맞아 반려견 사료 할인

이달 말까지 +1 증정·할인 행사

CU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사료와 간식 모든 상품에 대해 이달 말까지 +1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은 매년 3월 23일로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취지에서 강아지 사진 SNS에 올리기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기념일이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중은 2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반려동물용품의 가격은 전년 대비 8%나



CU가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사료와 간식 상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증정 할인 행사를 펼친다.

/BGF리테일

롯데마트, 저장 사과·양파 총 700t 품다

신선도 유지·합리적 가격 제공

롯데마트는 지난해 수확해 기체제어(CA)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부사 사과 500여 톤과 양파 200여 톤을 올해 첫 출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체제어 저장 기술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활용된다.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

라 공기 중 산소·질소 등의 기체 조성을 조절해 농산물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미생물·곰팡이 번식을 막아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이달 19일부터 기체제어 저장고에서 보관한 '갓따온 그대로 사과'와 '갓 수확한 그대로 단단한 CA 저장 양파'를 선보인다. 이들 상품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6월에 수확한 원물을 저장해 보관한 제품들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기체제어 저장 농산물을 준비한 이유는 저장 말기에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2024년산 사과는 수확기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전반적인 품질이 떨어지는 편이며, 수확기 고온현상으로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품질이 더 하락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K-뷰티, 美·日 등 유통망 확대... 글로벌 성장세 이어간다

코스맥스 이베이지재팬 통해 日 공략 한국콜마 아마존 협력체계 구축 CJ올리브영 美·日 현지 법인 설립

K뷰티가 해외 유통 업체와 협력하며 글로벌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국외 화장품 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차세대 K뷰티 브랜드의 현지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인 코스맥스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지재팬을 통해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과 함께 일본 현지 맞춤형 제품을 연구개발해 생산하고, 이베이지재팬의 유통 플랫폼 큐텐재팬을 적극 활용한다. 큐텐재팬은 입점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 마켓으로,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K뷰티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유행하는 소비자 취향뿐 아니라 기후, 소비 행태, 관련 규제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일본 기후, 고령화된 소비 사회, 가성비 등 일본 시장 특수성에



지난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큐텐재팬 K뷰티 메가 컨퍼런스'에서 코스맥스는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자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소개했다. /코스맥스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코스맥스의 기술력이 뒷받침된다. 코스맥스는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일본 소비자에 적합한 쿠션 파운데이션, 립, 크림, 에센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스맥스 측은 "미래 뷰티 시장은 브랜드 중심에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체제로 점차 변화해 갈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브랜드사와 동반성장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맥스는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본 현지 법인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높인다. 코스맥스는 일본 수요 확대를 대비해 올해 생산가능 수량도 약 30억 개 이상으로 늘렸다. 코스맥스가 최근 3년간 일본으로 직접 수출한 규모는 연평균 약 2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K뷰티가 아마존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며 매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아마존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와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아마존은 2억 명 이상의 유료 프라이م 회원과 600만 명 이상의 비즈니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마존 '프라이م 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판매고를 올렸다. 프라이م 데이는 프라이م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존 대표 행사 중 하나인데, 지난해 프라이메

이의 K뷰티 매출은 2023년 대비 2.2배 이상 증가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24 프라이م 데이 기간에 아마존 미국과 일본 스토어 일일 매출은 평소 일일 매출 대비 20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K뷰티 유통 업체인 CJ올리브영은 '직접 진출'을 추진하며 국내외 유통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상반기 일본 법인을 세웠고, 올해 2월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뷰티 시장에서 '중소브랜드 전용문'으로 입지를 쌓아 온 올리브영은 미국에서도 오프라인 1호점을 개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향후 CJ대한통문 미국법인과 협업하는 물류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뷰티 브랜드사 관계자는 "제조,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K뷰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외에도 물류 공급, 시장 등록 등 절차적 과제도 많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면 보다 활발하게 해외 시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암 연구 활용 사례 공유

19일 '최첨단 기술 세미나' 개최 정밀의학분야 등 활용 가능성 조망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삼성서울병원과 다섯 번째 첨단 기술 세미나를 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1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시리즈 V: 오가노이드: 연구 및 정밀 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 시리즈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주최되며 오가노이드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밀의학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는 환자의 조직에서 배양된 3차원 미니 장기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질병 연구에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최신 동향과 함께 다



양한 암 연구에 활용된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장암,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 오가노이드의 임상 응용을 다룬다.

삼성서울병원 정밀의학혁신연구소 박준오 소장과 삼성서울병원 조용범 교수 등 국내 유수의 교수들이 연자로 참석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역시 오가노이드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중 조직 이미징 기술, 공간 전자현미경, 홀로토포그래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3D 이미징 기술 등 첨단 분석 방법들이 소개될 예정

이다.

서울대학교 김은나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안수민·황인우 교수가 연자로 나선다. 이와 함께 세라트젠, 포도테라퓨틱스, 토모큐브, 지니너스 등 바이오 기업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정밀의학의 미래를 함께 탐색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장암과 폐암 등 다양한 질환에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모델링과 치료 적용, 다중 면역조직화학 분석 및 공간 전자현미경 분석 기법,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3D 세포 영상화 기술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정밀의료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오가노이드 기술이 어떻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국제약, '마데카 원료' 뷰티 신제품 출시

마데카파마시아 테카플러스포뮬러 3종

동국제약은 약국전용 더마 제품으로 '마데카파마시아 테카플러스포뮬러 3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테카플러스포뮬러' 성분을 함유한다. 해당 성분은 셀룰라아시타가 정량추출물과 텍스판테놀을 조합해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적합하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페이셜리페어 크림'은 아데노신 성분이 더해져 피부 보습은 물론, 피부 윤기까지 개선해 준다.

'멜라타치크림'은 트라넥사믹 에세드, 글루타치온, 복령추출물, 녹두추출물 등을 복합한 성분을 포함해 피부 미백 기능을 갖췄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기미, 잡티 면적을 20% 이상, 개수는 24%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마데카파마시아 테카플러스포뮬러 3종'
/동국제약

'핸드우레아크림'은 9만5000ppm의 우레아 성분으로 설계돼 피부 각질을 관리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에서 2주 사용 후 피부 각질과 거칠기가 15% 이상 개선됐다.

동국제약은 피부과학 노하우를 집약한 동국제약만의 마데카 원료를 활용해 다양한 피부 고민별 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티맵 백신 'GC3111B' 임상

1/2상 IND 식약처 승인

GC녹십자가 '국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낸다. 16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12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C3111B' 임상 1/2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GC3111B는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혼합백신(티맵, Tdap) 후보물질이다. 이번 임상에서 GC녹십자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

한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GC3111B 접종에 따른 안전성, 면역원성 등을 평가한다.

GC녹십자는 해당 임상을 오는 2026년 말까지 완료해 티맵 백신을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측면에서도 GC3111B 개발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GC녹십자는 원료 물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공정에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백일해 백신 제조 공정 특허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국내 최초

로 파상풍·디프테리아 혼합백신(티디, Td) 자국화에도 우선 성공했다.

GC녹십자는 향후 GC3111B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심사(PQ)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제 기구로 국산 티맵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자급화와 함께 수출을 확대해 국제 보건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GC녹십자 측은 "GC녹십자의 백신 개발은 온전한 백신 자급화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신 연구개발로 미래 감염병을 대응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이랜드월드 스파오 '취업 치어 업' 캠페인

이랜드월드의 제조·유통 일괄(SPA) 브랜드 스파오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첫 시작을 응원해! 취업 치어 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스파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스파오 오프라인 매장에서 슬랙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남성용 드레스 셔츠 또는 여성용 블라우스를 추가 증정한다. 단, 슬랙스를 여러 벌 구매하더라도 증정품은 1개만 제공되며, 한정

수량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슬랙스 구매 시 증정되는 남성용 '레귤러핏 드레스 셔츠'와 여성용 '블라우스'는 구김이 적고 관리가 쉬운 구김 방지 소재와 탄력이 좋은 신축성 소재로 제작됐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25년 취업 및 꿈을 향해 나아가는 취업생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규모 오프라인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스파오는 국민 삶에 기여하는 패션 아이템과 마케팅 캠페인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삼비에피스-성균관대, '의사과학자' 양성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 일원역캠퍼스 삼성융합과학원 대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과학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왼쪽)과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법률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사단법인 온율과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광동제약, 제주 지역사회 1억 상당 음료 기부

광동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의 음료나눔' 전달식을 열고 1억원 상당의 비타500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동제약 구준모 F&B영업본부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동제약



BNK경남은행, 삼호천 토닥길 '바늘꽃밭 조성' 봉사

BNK경남은행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소재한 삼호천 토닥길 일원에서 '바늘꽃밭 조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바늘꽃밭 조성 봉사활동에는 BNK경남은행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석전동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BNK경남은행



이마트 24, '편슬랭스타 2기' FF 전용공장 방문

이마트24는 지난 14일 대학생 MD서포터즈 '편슬랭스타 2기' 24명과 함께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이마트24 FF(Fresh Food)전용공장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학생 서포터즈는 유동호 공장장의 안내에 따라 ▲식재료 관리 ▲조리 및 생산공정 ▲포장 ▲완제품 검사 등 전반적인 간편식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이마트24

CJ제일제당, 김 육상양식 등 해양수산연구 앞장

지자체·대학 협력 고도화 산업화 등 공동연구 진행

CJ제일제당이 인천시(인천수산자원연구소)·인천대학교와 '인천지역 해양수산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대가 보유하고 있는 '김 종자 생산 및 연구' 노하우와 CJ제일제당의 '김 육상양식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라제시 포티네니(Rajesh Potineni) CJ제일제당 글로벌 사이언스&테크놀로지(Science&Technology) 연구담당(경영리더), 황효진 인천시글로벌도시정부무시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CJ제일제당



라제시 포티네니(Rajesh Potineni) CJ제일제당 글로벌 사이언스&테크놀로지(Science&Technology) 연구담당(왼쪽),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가운데),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부무시장이 김 육상양식 MOU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과 인천시·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김 육상양식 산업화에 관한 공동 연구 ▲김 종자 개발 및 양식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공모과제를 위한 컨소시엄도 참여하는 등 성공적인 과제 추진

을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달 전라남도·해남군과 김 육상양식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추진

하고 제주대·제주어류양식수협 등과 협력하는 등 실증 연구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제주도 내 양식을 중단한 육상 양식장들을 개조해 김 육상양식 시설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에 나서 2021년 수조 배양에 성공했고, 이듬해는 국내 최초로 육상양식에 적합한 전용 품종을 확보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고도화에 나서는 등 차별화된 김 육상양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가진 차별화 기술력을 토대로 지역사회 및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K-김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성전자, TV 80여종 '탄소발자국·탄소저감' 인증

QLED·OLED 친환경 경쟁력 입증

삼성전자는 2025년형 네오(Neo) QLED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더 프레임 등 80여종 모델이 독일 'TUV라인란드'로부터 '탄소 발자국'·'탄소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Neo QLED 8K·Neo QLED 등 삼성 프리미엄 라인업은 5년 연속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했다. 보급형 라인업인 QLED도 인증을 받으며 지난해 60개 대비 총인증 모델 수가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5년 연속 '탄소저감'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 Neo QLED 8K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21년 Neo QLED로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초로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한 이후, 발광

다이오드(LED)·크리스탈 초고화질(UHD)·라이프스타일 TV·OLED·모니터·사이니지까지 인증 대상 제품군과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TV 시장을 선도하는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TV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 대상 모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증 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총 40개사를 모집하며 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낮아져 지원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김승호 기자

동반위, 대·중기 공급망 ESG 사업 시행

예산 20억... 온실가스 검증 등 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2025년도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외국기업과 거래시 요구되는 ESG 지표, 온실가스 산정 등 ESG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ESG경영 전반의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16일 동반위에 따르면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외 수출 규제 등 ESG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ESG 활동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준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은 총 20억원 규모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거래선의 요구 등에 따라 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ESG 글로벌 인증,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반위는 앞으로 글로벌 ESG 트렌드에 맞춰 ESG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최근 EU의 옴니버스패키지, 미국의 파리후협약탈퇴 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ESG는 우리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며 "공급망 ESG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스타벅스코리아, 'MD FESTA' 개최

iF 어워드 수상 기념... 50% 할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인기 MD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MD FESTA'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MD FESTA는 스타벅스의 '안녕 시리즈' MD가 지난달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

서 수상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고객 감사 행사로, 수상작인 안녕 시리즈 MD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인기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머그, 텀블러, 보온병 등 드링크웨어 상품과 가방, 우산, 커피추출용품 등 다채로운 카테고리별로 구성된 MD 29종을 20% 할인 판매하고, 리저널 컬렉션인

'안녕 시리즈' 머그, 텀블러, 키체인 등 25종의 MD를 정사가 대비 5%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공식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MD와 온라인 스토어 전용 상품인 '코지 테이블웨어' 시리즈 MD, 인기리에 판매된 25주년 기념 MD, 각종 커피추출용품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된 상품을 3월 31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부음

▲박분순씨 별세, 구자익(전 전북대 학생과장)씨 모친상=16일 오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063-250-1443

▲신욱희(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씨 별세, 이영부씨 남편상, 신동훈씨 동생상, 신승혜씨 오빠상 = 16일 오전 4시 55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8일. 031-787-1510

▲오화남씨 별세, 우명자씨 남편상, 오진희·오진호·오진성씨 부친상, 이정석(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 대표)씨 장인상 = 15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낮 12시30분. 02-3410-3151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콘텐츠에 끼칠 영향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국회는 새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법률을 제정했다(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예정).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향후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중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특별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이 중에서 콘텐츠 업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 영리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들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의 선거운동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

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아직까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만을 취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산출물·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업계로서는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금지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을 콘텐츠 창작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오늘의 운세 3월 17일 (음 2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한 알의 모래알이 하나의 세계일 수도 있으니,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기쁘다. 60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어기지 마라. 72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는다. 84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 소** 37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난감하다.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73년생 지갑이 두툼해지니 마음도 든든하다. 85년생 뱀뱀 원숭이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 호랑이** 38년생 비전은 이상이지만 꿈이 현실일 수가 있으니 포기 말자. 50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62년생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게. 74년생 오후에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86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다.
- 토끼** 3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51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75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조용히. 87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 용** 40년생 부동산문서의 매매가 길하다. 52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64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6년생 삶에는 이용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힘든 경우의 일이 많다. 88년생 이루지 못한 꿈을 접을 때가 됐는데.
- 뱀** 41년생 몸은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53년생 과욕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65년생 흔한 성씨 김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77년생 외롭다 해도 사람을 만나서 채우려 하지 않도록. 8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 말** 42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5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66년생 물 건너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78년생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90년생 로또가 되려면 일단 로또복권을 사야 할 것.
- 양** 43년생 과민한 반응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55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67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자. 79년생 해매는 하루하루가 인생이라 했다. 9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 원숭이** 44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56년생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68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92년생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말은 할 수 있다.
- 닭** 45년생 배가 아파도 흰죽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57년생 누구나 하나쯤은 잘하는 것이 있으니 편견 말자. 69년생 고생 끝에 낙이 있다. 81년생 연인끼리 금전 기대를 접으면 마음이 편하다. 93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즐겁다.
- 개** 46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58년생 곁을 떠나는 사람은 잠시 마라. 70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82년생 물이 깊은 자갈은 건너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인지. 94년생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무능함 인정.
- 돼지** 47년생 아버이 살아 실제 설기기를 다하지 못하다 보니. 59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1년생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음을 추스르자. 83년생 천국을 본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닐 수 있다. 95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蓋世)는 허세.

기계에 밀리는 인간, 새 시대에 필요한 발상



기지 수집
김 현 정 (IT부)

최근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사들을 탐독하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정말 잘 썼다"라고 감탄했던 기사 중 상당수가 생성형 AI가 쓴 것이었다. '기자 구독'을 위해 기사 말미로 스크롤을 내리면 어김없이 챗GPT, 클로드 3.5 소네투와 같은 생성형 AI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명색이 IT 담당인데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중국의 AI 챗봇 '딤시크'에 접속했다. 입력창(프롬프트)에 "'생태계 확장'과 비슷한 표현 알려줘"란 명령어를 넣고 기다렸다. 큰 기

대는 없었다. 과거 생성형 AI가 막 출시됐을 당시 동어 찾기를 몇 번 시도해봤으나 입력한 단어 뒤에 접미사, 조사, 의존명사를 붙인 바보 같은 말들만 내뱉어 창을 닫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태계 확장'과 뜻이 유사한 표현들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생태계적 확장', '생태계의 확장', '생태계 확장의 것'이란 답을 돌려주는 식이었다.

그런데 성능이 낮아 쓸모없던 생성형 AI가 환골탈태했다. 문맥의 뉘앙스를 파악해 '시장 확대', '플랫폼 강화', '연계망 성장', '에코 시스템 다양화' 등 KBS의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도 단시간 내 생각해 내기 어려운 유사 표현들을 단 몇 초 만에 쏟아냈다.

문득 서울 노랑진에 들어선 '무인 곰탕집'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에 온 손님들

은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각자 알아서 고기가 담긴 그릇에 국물을 넣어 먹는다고. 일자리 시장에서 인간은 기계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저서 '김상욱의 과학공부'에서 "기계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며 "기계가 할 수 없는 직업을 찾는 식으로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아예 생각을 바꿔 기계에 모든 일을 맡기고 인간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며 "조만간 우리는 기계와 공존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이 그 단초가 되길 바라본다.

/hjk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상관 사주 남편

실력 있는 전문직인데 사건 사고로 연일 고생이다. 심지어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사는 게 괴롭다. 더구나 같이 사는 아내로서는 이렇게 골치 아플 수가 없다. 지난번 상담을 온 여자의 상황이 그랬다. 사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다. 남편은 전문직인 세무사다. 삼십 중반의 남편은 실력이 좋아서 일도 많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 사람도 성실하고 바른말을 잘한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좌충우돌이다. 남편은 넘치는 상관이 문제였다. 상관은 사주 십성十星 중에서 흉신으로 작용한다. 글자 그대로 관에 흡입을 낸다.

정해진 규율보다는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니 뒷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사주다. 더구나 잘못된 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할 말은 꼭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니 주변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세무 일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대중 넘어가지 못하는 남편은 의뢰인과 갈등이 많아서 사건 사고가 잦은 것이다. 남편이 일 처리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길게 보면 결국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상관 사주는 실력이 좋아도 재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은 인성이 왕한 상관생재로 재성을 끌어온다. 운세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재물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남는다. 사춘기 아이처럼 잠시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좌충우돌하던 아이가 어느 날 훌쩍 자란 믿음직한 모습이 되듯 남편도 업계에서 우뚝 솟아오른 전문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8	8	7	2	9	9	1
8	2	9	1	9	6	8	2	7
7	9	1	8	2	9	2	6	8
9	9	8	2	6	2	1	7	8
6	1	7	9	9	8	2	8	2
8	2	2	7	8	1	6	9	9
9	8	9	2	7	8	1	6	9
2	7	6	9	1	8	9	8	2
1	8	2	6	8	9	7	2	9

1	6	8	8	7	2	9	2	9
7	2	9	6	9	8	1	8	2
2	8	9	2	9	1	8	6	7
8	7	6	2	1	9	9	7	8
2	7	2	8	2	9	6	1	9
9	9	1	7	8	6	2	8	2
6	1	8	9	2	7	9	9	8
9	2	1	8	7	8	9	6	8
8	9	7	9	6	8	2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3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지역별 고교생 수 격차심화 “학생 수 없어 1등급 진입 불가능”

17개 시도 고교 평균 학생수 격차 올해 136.7명... 매년 커질 전망 수강자 4명이면 1등급 못받고 5~37명까지 1등급 1명에 불과 교육특구 ‘내신에 유리’ 분석도

전국 고교별 학생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워 향후 학군지 선택에 고교 학생 수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전망이다. 교육경쟁이 심한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가 내신을 받기 어렵다는 통념과 달리, 학생 수가 많아 내신을 받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 평균 학생 수 격차는 지난해 고3을 지낸 2025학년도 136.7명에서 2026학년도 150.4명, 2027학년도 165.0명으로 매년 커질 전망이다.

2025학년도 지역별 기준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경기 249.1명, 세종 226.6명, 서울 226.4명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강원 지역(112.4명)과 136.7명의 격차를 보였다.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를 예정인 현재 고3은 경기도와 강원지역이 각각 278.7명, 128.3명으로 격차는 150.4명까지 늘었다.

현재 고2 학생인 2027학년도에는 지

역별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세종 283.9명, 경기 273.1명, 서울 238.4명으로 순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가장 적은 강원 지역(118.9명)과 격차가 165명까지 벌어진다.

문제는 현행 고교 내신 산정 방식에 따라, 과목 수강자가 적은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고교 내신은 학교별로 과목수 수강자 수 대비 4%까지 1등급이 주어지는 구조로, 전체 수강자가 많을수록 내신 상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많다. 11%까지는 2등급, 23%까지 3등급인 9등급제로 나뉜다.

반면,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실력과 상관없이 1등급 자체 진입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고교 수강자 수가 4명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0명이고, 5~37명까지 1등급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재 고1이 수능을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과목수강자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 ‘9등급제’보다 완화되지만, 수강생 수에 따른 우월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셈이다. 5등급제에선 34%까지 2등급, 66%까지 3등급을 받는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교육 접근성이

높아 경쟁이 심한 강남·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가 내신을 받기에 불리하다는 통념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결과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교 내신을 따기 유리하고, 이는 대입 실적과도 연결되면서 상황에 따라 오히려 교육특구 지역이 학교 내신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고교당 평균 학생 수 격차는 심화한다. 서울 25개구에서 고교당 평균 학생 수 격차는 ▲2025학년도 159.8명 ▲2026학년도 174.8명 ▲2027학년도 195.8명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5학년도는 서초구 고교당 평균 학생 수가 290.5명으로 가장 많고, ▲양천구 287.4명 ▲은평구 275.7명순으로 높다. 반면 중구는 130.7명으로 학교당 학생 수가 가장 적다. 서초구와 중구의 학생 수 평균 격차는 159.8명이다.

2026학년도에는 ▲양천구 325.4명 ▲서초구 316.5명 ▲강남구 304.5명순으로 높고, 용산구가 150.6명으로 가장 낮으며, 최대 격차는 174.8명이다. 2027학년도에는 ▲서초구 332.4명 ▲양천구 321.8명 ▲강남구 301.5명순으로 높고, 성동구가 136.6명으로 가장 낮아 ‘195.8명’의 격차를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임종화 세종대 총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세종대에서 열린 협정식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기후변화연구원 ‘탄소중립’ 맞손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협정 체결

세종대학교(총장 임종화)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최근 교내 집현관 소회의실에서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정식에는 세종대 임종화 총장, 김형욱 대외협력처장,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장전익찬 교수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동일 연구원장, 이종국 기후정책1연구실장, 김필곤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어젠다를 함께 논의

할 예정이다.

이날 협정식에서 임종화 총장은 “세종대는 전의친 교수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기후변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련 인재를 배출한 대학”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국가적 과제를 고민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동일 연구원장은 “세종대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와 관련된 인재 양성에 힘쓰며, 앞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을 더욱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42개국 유학생 ‘한 자리에’

‘제1회 국제교류의 밤’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 소재 수재캠퍼스에서 국제학생과 국내 재학생과 국제학생이 다함께 참여하는 ‘제1회 국제교류의 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42개국 및 지역에서 온 115명의 국제학생과 이들의 대학생 활을 돕는 108명의 성신글로벌프렌즈(버디, 전공멘토링, 튜터링), 일반 재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팀 활동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한 사토 린(일본, 디자인과) GKS 장학생은 “캠퍼스

를 돌아다니며 팀 게임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릴길 기대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이번 행사는 국제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대학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재학생들에게는 글로벌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성신여대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외 재학생 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입간판규제 완화 등 10건 규제철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보증금 최대 450만원까지 인정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하기로

서울시가 주거 위기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편의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16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옥외광고 소재를 제한했던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규제철폐안 74호에 따라,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서울시청 전경. /손진영 기자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76호에 따라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자산 차감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한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차녀 이상 양육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

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도 완화(규제철폐안 77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78호):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 가능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선발 과정 개선(79호): 장학금 소득기준 적용 시점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로 확대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 전자화(80호): 제안서 등 계약서류 온라인 제출 ▲MICE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81호): 외국인 단체 MICE 지원금 여행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82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제로 타 사업 신청 시 활용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83호)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1 | 해질 / 18:41

3월 17일 (월)
음력 : 2월 18일

수도권 날씨
-2 ~ 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4/6

동두천 -4/7

파주 -5/6

가평 -4/6

서울 -2/6

양평 -2/7

인천 -1/5

수원 -1/6

용인 -1/6

평택 -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트럼프, 이민추방에 18세기 전시 법 소환... 법원 기각

▲美 트럼프, 예멘 사나 폭격명령에 ‘최소 24명 사망’

/사진 뉴스시스

▲美 연준 오는 18~19일 기준금리 결정...동결 전망

▲세계1위 배터리업체 中CATL...순익 절반 5조 원 현금배당

▲日, 車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8년 의무화 추진

▲알제리군, 모로코에서 밀수한 마약류 2.5톤 압수



광고 빼고, 계약 종료
식품·유통가
김수현 지우기
니



Life

K-뷰티
미국·일본 등
유통망 확대
L2



“미관 넘어 치아 건강까지… 교정치료로 웃음 되찾아줄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바라봄치과교정과의원 강병민 원장

“환자의 만족뿐 아니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진료를 하고 싶다.”

강병민 바라봄치과교정과의원 원장의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오랜 시간 치의학에 몸담으며 다져온 신념의 결정체다. 치의학박사이자 치과교정과·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치아 교정이 단순한 미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치아 수명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강조한다. 강 원장은 “환자의 만족은 결국 치료 결과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환자가 자신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 보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된다

강 원장은 지난 9년간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며 치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았다. 최근 그는 자신만의 진료 철학을 담은 바라봄치과교정과의원을 개원하며 한 단계 더 성장했다. 환자가 자신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와 함께 치료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치료라는 그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강 원장의 진료실에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환자와의 ‘소통’이 흐른다. 진료실마다 최신 광학 진단 장비(Q-ray)와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환자가 자신의 치아 상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증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그의 방식이다.

강 원장은 “환자가 자신의 치아 상태를 정확히 알면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진다”며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 예방 역시 강 원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그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흡입력이 큰 건식 석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치과 체어에서 나오는 모든 물을 살균수로 바꾸는 장비를 갖춰 치료 전 환자의 구강 내 세균 수를 최소화하고 있다.

강 원장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라며 “모든 기구는 1회 사용 후 철저히 소독하고, 일회용 기구를 적극 활용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아 교정, 미관을 넘어 기능 회복까지

강 원장은 치아 교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는 “교정은 치아의 배열을 바로잡아 미관을 개선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교합 상태를 만들어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치아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강병민 바라봄치과교정과의원 원장.



9년간 치의학 수련, 박사학위 취득 등 전문성 쌓아
환자와의 ‘소통’ 중요… 진료철학 실현 위해 개원

교정, 치아배열 바로잡아 치아수명 늘릴 수 있어
환자 만족에 더해 의사가 자부심 느끼는 진료 해야
정확한 진료와 판단으로 최상의 결과 이끌어낼 것

이어 “청소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며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쓰러지거나 비정상적인 교합이 발생하면 주변 치아에 과부하가 걸려 수명이 짧아진다. 교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면 치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교정치료를 통해 얻은 성취감은 환자의 반응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 수련 시절 치료했던 한 환자를 떠올렸다. “심한 부정교합으로 양악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환자였는데, 교정만으로 치료해 성공했다”며 “그 환자가 저에게 ‘태어나서 처음 앞으로 씹을 수 있게 해준 은인’이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성실함으로 연 의사의 길

강 원장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로 인해 고마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꿈이었다.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의사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선택했던 직업이었다”고 회상했다.

처음에는 의대를 목표로 했지만, 수능 성적이 다소 아쉬워 고려대학교 건축학부에 진학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남아 있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휴학계를 내고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의대와 치대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성적을 얻었다.

강 원장이 고민 끝에 치과대학을 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는 “당시 전국에 치과대학이 4개밖에 없었고, 경쟁률이 높아 치대 진학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서부터 충치가 많아 치과에 자주 다녔고, 손기술에 자신이 있었던 점도 치과의사가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치과대학 입학 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차석 졸업이라는 성과를 냈다. 졸업 후에도 배움의 한계를 느낀 그는 일반 치과의사가 아닌 전문의를 선택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의 과정을 거친 뒤 통합치학과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했다. 동시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치의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최고의 치료를 위한 다짐

강 원장은 전문의 취득 후 봉직의(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의사)로 활동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점차 자신만의 진료 스타일에 대한 갈증이 커졌다. 그는 “치과마다 진료 방식이 달라 봉직의로서는 제 방식대로 진료하기가 어려웠다”며 “제 철학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결국 개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탄생한 바라봄치과교정과의원에는 강 원장의 진료 철학이 곳곳에 스며 있다. 그는 “진단의 시작은 정확히 보는 데서 출발한다. 환자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과에 만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 광학 진단 장비와 대형 모니터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철학의 연장선이다.

강 원장은 환자의 만족뿐 아니라 자신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치과 치료는 의사의 손길이 직접 닿는 과정이 많다.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보다 최상의 치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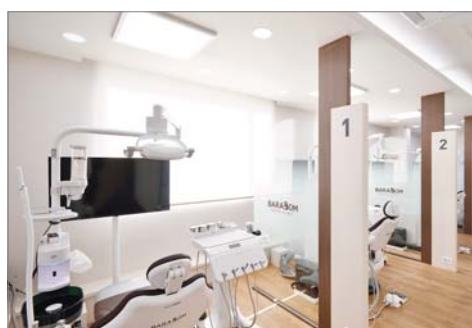
이 같은 철학은 환자들 사이에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료 치과의사나 치과 직원들이 치료를 맡길 때는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강 원장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동료 치과의사나 직원들이 저에게 치료를 맡길 때는 제 실력을 인정받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이 걸어갈 길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이 건강한 미소를 되찾는 순간이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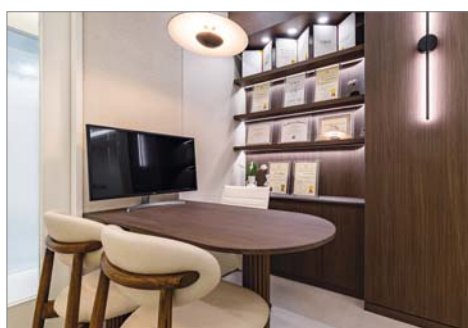
강 원장의 눈빛에는 환자를 향한 진심과 치의학에 대한 사명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의 치료로 보답하겠다”며 “환자가 만족하고 믿음을 주는 치과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자의 건강한 웃음이 자신의 가장 큰 보상이자 원동력을 잊지 않겠다는 강 원장.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진심이 묻어났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바라봄치과교정과의원 모습.



메트로 한줄뉴스



▲안세영, 세계 최고 권위 배드민턴 대회 결승 진출 /사진 뉴스스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 5선발로 김유성을 낙점

▲김민재 낙마한 흥명보호…내일 고양서 3월 A매치 소집
▲‘155km 광’ 한화 새 외인 폰세…2경기 연속 무실점

▲봉준호 ‘미키 17’ 북미 개봉 둘째주 박스오피스 3위
▲홍상수·김민희 출산에도…연 끊긴 본처·딸 상속